지난 1분기 국내 고로 업계가 강관사향 실수요 열연·STS 공급 단가 인상을 실시했지만, 강관 업체들은 단가 인상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관사들은 각종 원부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그리고 그간의 적자 판매를 감안한다면,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2분기 강관 시황 전망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명화 기자
lmh@steelnsteel.co.kr
스틸데일리

특집 2 분기전망-강관

불확실성 가득한 2분기 수요...강관, 국내 판매 가시밭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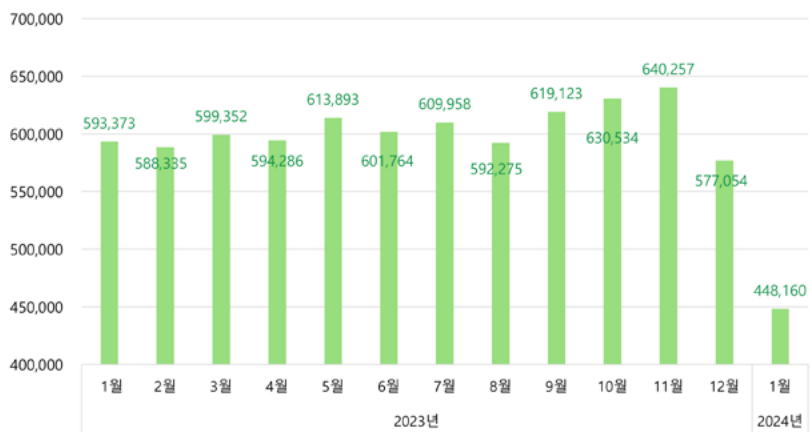
- 건설 경기 회복 관건...불안한 2분기, 판매난 이어질까
- 고가 원부자재 비용 부담...강관 업계, 경영 부담 지속
- 인상 불씨 지피는 강관 업계, 하지만 수요 회복 미지수

1분기 인상 '수포'로...2분기 판가 인상 총력

국내 고로 업계가 1분기 열연 공급 단가에 대해 적극적인 인상에 나서면서, 탄소강 배관재 업계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인상에 나섰다. 또한 탄소강 구조관 업계는 1월에 제품 공급 단가 인상에 나섰다. 강관 제조 업계로서는 원자재인 열연 및 용융아연도금강판 가격 상승과 더불어 제조 원가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 인상이 불가피했다.

월별 강관 재고 추이

단위: 톤
자료 : 한국철강협회, 스틸데일리 DB



탄소강 강관 제조 업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수주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 판매 가격 인상을 실시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탄소강 구조관의 경우 1월 인상이 무색하게 가격 하락까지 발생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이 때문에 강관사들은 2분기 역시도 가격 인상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올해 1분기 원자재 가격 상승분까지 적자로 떠안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다 보니, 2분기 각 업체별 판가 인상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요 둔화에 인상 적용 쉽지 않아...판매 첩첩산중

특히 업계는 2월 구정 직후에는 시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춤해진 수요에 수주 경쟁까지 심화되면서 판매 가격이 더 하락하는 결과로 연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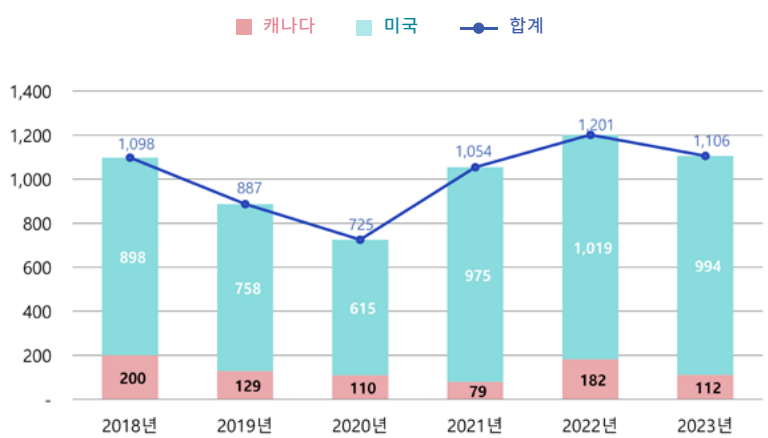
그나마 국산 원자재 가격 상승과 2월부터 포스코 포항 4고로 개수 영향으로 인상 명분이 충분하다는 지적이지만, 건설 등 주요 수요 자체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해 인상 가격 적용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가 집계한 강관의 생산·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국내 업계의 강관 생산량은 43만1,204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으나 판매의 경우 40만9,481톤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관 업계는 공통적으로 3월 하순까지도 강관 수요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와 제조 업체들의 단가 인상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4월 판매 분위기 역시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강관 제조·유통 업체들의 경우 인상 가격을 제때 적용하지 못하면 적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만큼, 2분기 역시도 업계의 판매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업계 북미 강관 수출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 한국철강협회, 스틸데일리 DB



다만 수출의 경우 스틸데일리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3월 1일까지 대미 강관 쿼터 소진량은 약 13만2천톤으로, 분기별 쿼터 한도가 약 30만톤인 점을 감안한다면 소진율은 43% 수준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유정관은 약 6만8천톤 소진, 송유관은 약 4만7천톤을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견조한 북미 리그수 추이를 감안한다면 올해 연간 쿼터량인 유정관 약 46만톤, 송유관 약 42만톤을 무리 없이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관 업계, 원부자재 가격 움직임에 고민 깊어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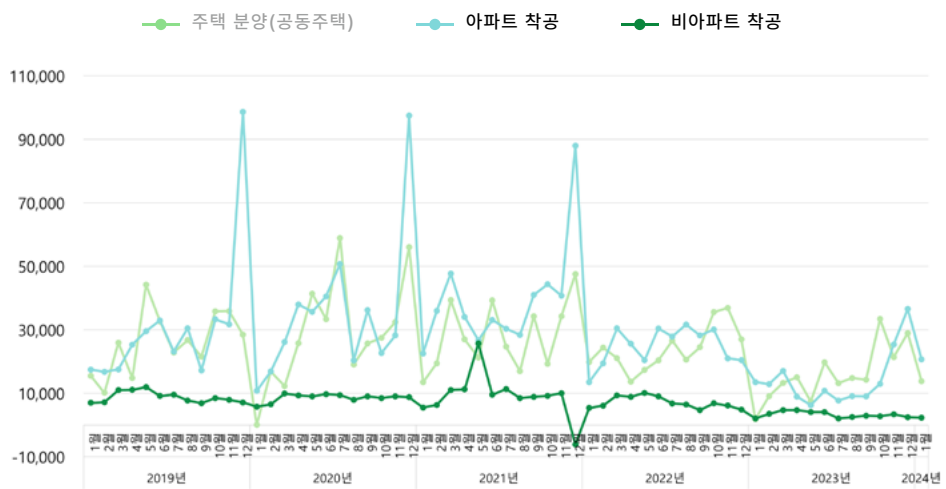
결국 강관 업계는 기존에 구매한 원소재 재고 영향으로 적자 부담이 컸던 만큼,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외산 원소재 매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수입재의 경우 5월 선적분까지 수입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요 회복이 불투명하다면 무리한 계약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5월 선적분 중국밀들의 한국향 수출 오퍼 가격은 열연 톤당 564달러(CFR, 한화 약 76만원), 후판 톤당 598달러(CFR, 한화 약 81만원)에 제시됐다.

여기에 철광석과 점결탄 등 철강 원자재 가격이 최근 다시 낮아지고 있는 점과, 국내 강관 수요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외산 열연 공급 단가의 지속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강관 업체 관계자들은 철강 원자재 가격과 달리 각종 부자재 비용과 물류비가 상승하면서 제조 원가 외에도 각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2분기 강관 시장은 인상 가격 적용과 추가 인상을 고민하는 강관 제조 및 유통 업계와, 건설 등 수요 업체 간 철강 원부자재 가격 움직임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국 주택 분양 및 착공 건수

단위: 호
자료 : 국토교통부, 스틸데일리 DB